

한국 선시의 갈래와 禪趣의 문제

조태성*

<차례>

- 1. 머리말
- 2. 선취의 모호성과 선시의 갈래
- 3. 선취시의 실제
 - 3.1. 선기와 선취
 - 3.2. 선취시의 실제
- 4. 맺음말

1. 머리말

禪趣란 일반적으로 시에 나타난 선적 감흥, 혹은 그 정취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감흥이나 정취가 녹아든 시를 禪趣詩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선취시라고 판단할 수 있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가 선취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취시가 선시의 갈래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의 독립된 갈래로 존

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杜松柏¹⁾의 논의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李鍾燦²⁾의 논의가 가장 앞서 있다. 두송백의 경우에는 선적 사유의 깊이를 시에 들게 한다는 의미에서 선시의 한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에 선취시를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중찬 역시 詩의 禪的 含蓄이라는 측면에서 선취시를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들의 논의는 다음 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여하튼 선취시의 개념이나 갈래를 규정하려는 기왕의 연구 성과들이 적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성과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취시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한다거나 선시의 갈래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바라본 선취시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에서 선취의 개념은 더욱 폭넓게 형성될 것이며, 나아가 어느 한 체계에 얽매이지 않는 선시의 자유로운 한 형태, 혹은 선시가 지향해야 할 궁극의 형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 선취의 모호성과 선시의 갈래

흔히 선취시는 선시의 갈래를 분류하는 경우에 쓰이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안에서 선과 시의 관계에 대해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올린 두송백조차도 ‘선취’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그 형성 등에 대한 단순 진술에만 그치고 있다. 그는 전인들의 경우 그들의 의식 속에 선취시란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徐而庵(徐增)의 시화를 통해 비판한 바 있다.

1) 杜松柏, 『禪學與唐宋詩學』,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5.

2) 李鍾燦, 『한국의 선시』, 이우출판사, 1985.

* 전남대학교

또한 그는 李重華의 『貞一齋詩話』를 빌어 “선취시란 ‘이해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호한 허깨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으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하였다. 沈德潛의 말을 빌어서는 “시는 禪理와 禪趣가 있는 것을 귀중시하는 것이지 禪語의 인용을 귀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선의 이념을 담고 있으면서도 여운이 넘치는 시야말로 선취시를 구성할 수 있는 중요 부분이라고 주장³⁾하기도 하였다.

결국 어떤 것이 선취시인지, 선취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말하고자 했던 선취시는 선의 이념을 담고 있되 반드시 여운이 넘쳐야 하는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는 선시의 분류 작업에서 선취시를 ‘以禪入詩’의 항목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의 분류 체계를 좀더 자세히 보자면, 우선 두 가지의 기준 항목을 설정하였는데, ‘以詩寓禪’과 ‘以禪入詩’이 그것이다.

‘以詩寓禪’이란 시의 형식을 빌려 선의 경지를 표현한다는 뜻이겠는데, 이러한 항목에 속하는 선시로 示法詩, 開悟詩, 頌古詩, 禪機詩를 꼽았다. 또한 선적 사유의 깊이를 시에 들게 한다는 뜻의 ‘以禪入詩’의 항목에 禪理詩, 禪典詩, 禪迹詩, 禪趣詩를 꼽았다.⁴⁾

우리나라에서는 이종찬에 의해 이러한 분류 작업이 처음 시도⁵⁾되었다. 그도 또한 선시의 갈래 체계를 세우는데 있어 두 가지의 기준 항목을 제시하였는데, ‘禪의 詩的 援用’과 ‘詩의 禪의 含蓄’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전자로는 示法詩, 開悟詩, 拈頌詩, 禪機詩를 꼽았고, 후자로는 禪理詩, 禪事詩, 禪趣詩를 꼽았다. 앞서 두송백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李晉吾의 견해⁶⁾는 매우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는 크게 전체적인 대분류상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와, 하위분류 기준에서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먼저 “대분류가 원초적으로 시와 선이 관련을 맺으면서 어느 쪽이 중심인가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나, 하위분류의 항목을 보면 대분류와 과연 일치하는가 하는 의구심”과 “이러한 대분류가 시를 짓는 과정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작품 그 자체의 분류로서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한 “분류의 기준이 주제 · 소재 · 창작계기 등으로 일정치 못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특히,

선시가 선과 시의 완전한 융합으로 어느 것이 주가 되는지를 분간 못할 정도일 때 가장 훌륭한 선시가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각각 한쪽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류한다는 것은 오히려 선시의 본령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⁷⁾

고 언급한 점은 선시에 있어서 그 갈래 체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위의 밑줄 친 주장과 같이 ‘禪趣’의 존재나 그 개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매우 합당한 견해라고 여겨진다.

위의 지적은 우선 선시의 갈래 체계를 인위적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선시의 최고 경지를 전제하면서도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작업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율배반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본고 역시 이러한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앞서 선취, 혹은 선취시에 대한 여러 논의를 소개한 바 있다. 이 논의들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집약된다고 보인다. 즉 선사에서 선과 시가 구분되지 않고, 또한 그 중 하나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시를 선취시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이진오의 지적과 결부시

3) 杜松柏 지음, 朴浣植·孫大覺 옮김, 『선과 시(禪과 詩)』(민족사, 2000), 317~349쪽 참조.

4) 杜松柏, 『禪學與唐宋詩學』(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5), 197~364쪽 참조.

5) 李鍾燦, 위의 책, 82~112쪽 참조.

6) 李晉吾, 『韓國佛敎文學의 研究』(民族社, 1997), 46~47쪽 참조.

7) 李晉吾, 위의 책, 47쪽.

켜 보자. 결국 선과 시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 그 중 어느 하나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선시가 곧 선취시요, 또한 이는 선시의 최고 경지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선취시는 곧 선시의 최고 경지에 이른 작품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선취나 선취시를 대하는 관점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이미 선시의 최고 경지에 이른 선취시를 선시의 갈래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의 항목으로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선취란 여러 선시 작품들 가운데 그 미적 경지와, 문학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비평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3. 선취시의 실제

3.1. 선기와 선취

이종찬은 두송백의 견해를 빌려 아래와 같이 禪機와 禪趣를 구분한 바 있다.

禪師들의 시가 완전히 이러한 종교적인 목적을 떠나 시 자체로 존재하더라도 禪의 함축성을 내포하는 시들이 있다. 따라서 이런 시의 경우에 그 작자는 禪師라기 보다 시인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시인과 선사가 서로 융합되는 현상도 이런 시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禪家의 처지에서는 禪機가 되고 시인의 입장에서는 禪趣가 된다 하겠다. 문학에서 선시를 수용한다면 이 禪機詩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⁸⁾

이는 선사들이 남긴 작품들 중 禪理의 표현이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 禪味를 잃지 않는 작품들의 경우를 禪機詩라고 정의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적 경지는 선사나 시인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똑같은 경지를 두고서 시인의 경우엔 선취시, 선사의 경우엔 선기시라고 달리 분류한 것인데, 이는 작자의 신분 문제를 염두에 둔 듯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선사에게 있어서의 선취시의 존재’ 역시 부정하지 않았다.

선의 시적 援用이라 하여, 선사라고 하는 시인 이전의 신분 때문에 禪機의 표현을 실로 빌어 나타냈다 하여 禪機詩라 하였다. 그것은 禪機가 두드러지게 보일 때 일이지만, 그러한 흔적 없이 전 편에 함축된 경취에서 선취를 느낀다면 이도 시의 선적 함축으로 보아 일반 시인의 선취시와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⁹⁾

는 진술이 그것이다. 위의 전후 진술을 토대로 살펴보면 우선 작자의 신분 문제가 주목된다. ‘선사와 일반 시인’뿐만 아니라 ‘선사와 선사이기 이전의 시인’의 신분이 그것이다. 작품 전반에 걸쳐 분명하게 선기가 드러난다면 선사와 일반 시인 사이에서의 선사의 신분이 되겠고, 선기의 흔적이 없다면 선사 이전의 시인과 일반 시인 사이에서의 시인의 신분이 된다는 말로서, 이는 곧 시인 대 시인일 뿐이다. 같은 인물을 두고서 작품의 내용에 따라 그 신분이 옮겨간다는 것은 아전인수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선취에 대한 명쾌한 개념 정의 혹은 유형의 분류가 미흡하기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다음 작품을 보자.

雨歇春山草色濃
花開兩岸映溪紅

비 개인 봄 산 풀빛은 더욱 짙고
꽃 피는 언덕은 시냇물에 붉게 비치네

8) 李鍾燦, 『韓國禪詩의 이론과 실제』(이화문화출판사, 2001), 100쪽.

9) 李鍾燦, 위의 책, 127쪽.

徘徊唵賞忘歸路
疑是身空物亦空

을조리며 노닐다 돌아갈 길 잊으니
텅 빈 이 몸 따라 만물 또한 비었는지.
〈紅流洞〉¹⁰⁾

이 작품은 조선시대 부휴선사의 시로, 이종찬이 선기시의 사례로 삼은 바 있다. 그는 “봄날의 화창한 경치에 온갖 사물이 악동하여 극히 동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텅빈 느낌을 준다. 극히 정적인 감각을 일으키게 하니, 어쩌면 禪의 실천적 자세의 표출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禪의 의의를 전혀 표현하지 않아도 절로 禪이 표출되는 상태다.”¹¹⁾라고 하면서 작품에 내재된 선기를 읽고자 하였다.

계속해서 다음 작품을 보자.

春深古院寂無事
風定閑花落滿階
堪愛暮天雲晴淡
亂山時有子規啼

봄 깊은 옛 집 일없어 적적하고
꽃잎은 바람 없어도 섬돌에 가득 지네
저녁 하늘엔 맑게 구름 개어 사랑스럽더니
어지러운 산 가운데 가끔 우는 두견새.
〈春晚遊燕谷寺贈堂頭老〉¹²⁾

위의 작품은 고려시대 無衣子 慧謙(1178~1234)의 시이다. 이 작품을 두고 이종찬은 선취시의 한 사례로 삼았다. 그러면서 그는 “굳이 선적 내용을 담으려는 것이 아니나, 작자가 선사이기에 禪定같은 기분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¹³⁾이라고 평한다.

10) 善修, 『浮休堂集』卷四.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韓國佛敎全書』第八冊(동국대학교 출판부, 1997), 16쪽. 이하 『韓佛全』이라 칭하며, 본고에 인용되는 작품은 모두 이 책에서 발췌한다. 전구의 ‘唵’은 편찬자주 ‘吟’으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해석 역시 ‘吟’의 뜻으로 되어 있다.

11) 李鍾燦, 위의 책, 101쪽.

12) 慧謙, 『無衣子詩集』卷下. 『韓佛全』第六冊, 56쪽.

13) 李鍾燦, 위의 책, 127쪽.

그러나 위의 부휴와 혜심이 제작한 작품 중에서 어떻게 ‘선기가 두드러지는지’ 읽어내야 하는 일은 도무지 막연하다. 혜심의 작품에서 선기의 흔적이 없이 선적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신분을 염두에 둔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같은 작품에서 선기를 읽어내는 것은 더욱 쉽게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이미 선사이기 때문이다.

결국 선사들의 시에서 선취는 별도로 존재하는 형식상의 부류는 아니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선취는 감흥에 대한 주관적 쓰기의 결과요, 또한 주관적 읽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러한 결과에 닿을 수 있는 작품들의 부류는 선기시라 하고, 그 선기시가 이루어야 할 시적 경지를 ‘선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선시에 있어서의 선취의 경지를 이루는 것에 대해 작자의 신분¹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작자가 불가의 인물이 아니라면, 적어도 불가의 사상을 일정한 정도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다른 사상의 포용에도 관대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 정도는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시의 분류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관점이 그 체계의 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3.2. 선취시의 실제

어떤 작품에 대해 작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그 작품에서 선취를 ‘읽어

14) 선시를 논함에 있어서 그 작자가 불가에 몸을 담고 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그 내용과 분류 등에는 커다란 이의가 없다. 그러나 유가의 인사들이 이러한 시를 제작하였을 경우, 이를 두고 그 내용과 분류에 있어 선시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작자의 삶과 사상을 고려하여 불가와 인연이나 사상에 깊은 관계가 있다면 ‘불교한시’라는 큰 맥락 아래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내야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이미 그러하리라’는 선입견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지점에서 작품에 대한 평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 작품을 보자.

日日看山看不足	날마다 산은 보아도, 보아도 부족하고
時時聽水聽無厭	때마다 물소리는 들어도, 들어도 싫지 않네
自然耳目皆清快	눈과 귀는 저절로 상쾌해지고
聲色中間好養話 ¹⁵⁾	물소리 산 빛 사이 고요 일어 좋을레라

여름 푸르른 산, 겨울 하얀 산이 겹쳐듯 보이고, 물이 옆에 없어도 저절로 물소리 들릴 것만 같은 정경이다. 그것을 대하는 화자의 마음 또한 맑으니 저절로 눈과 귀도 상쾌해지고, 그 가운데 호연지기는 절로 일어난다. 이런 정서의 구현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그대로 江湖歌道가 아닐까. 致仕 이후 자연과 함께 유유자적하는 어느 선비의 작품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이 시는 고려시대 圓鑑國師 冲止(1226~1292)의 〈閑中自慶〉이라는 작품이다. 제목에서 보이듯이 ‘한가한 가운데 스스로 기뻐한다’는 것이 작품의 주 내용이 될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라면 대개의 선시에서는 주로 ‘悟道’를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는 불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그 어떠한 단어도, 어구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이 시에서 어떻게 선기를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외부적 조건, 즉 신분에서 비롯된 작시의 추정적 동기를 전제하고, 주관적인 읽기를 통해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민은 이 시에서 “물은 쉬임 없이 흘러가며 무상의 설법을 들려준다.”¹⁶⁾ 고 읽었다. 절집과 숲길을 걷고 완상하는 선승의 모습을 전제한다면, 그에

게 들리는 물소리나 산 빛 그 어느 하나도 무심한 物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여 그 마음이 곧 그대로 ‘自然’이겠고, ‘禪’이겠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절대의 경지에 이르지 않은 바가 없으니, 이것이 선승의 선기요, 나아가 시의 선취가 아니겠는가.

一片白雲閑	한 조각 하얀 구름 한가한데
隨風落低山	바람 따라 산 속으로 흩어지네
東西本無繫	동쪽 서쪽 본래부터 메이지 않았으니
好去好來還	잘 갔다가 잘 돌아올 것을

〈送宗上人南遊序〉¹⁷⁾

이 작품은 제목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남쪽으로 운수행각을 떠나는 중상인에게 부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만 보아서는 마치 어떤 선승이 同學僧이나 門下僧에게 주는 선가의 계송으로 보아도 무방한 듯 보인다. 전구인 ‘東西本無繫’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더욱 결정적인 시구가 된다.

그러나 이 작품은 고려시대의 문인인 李奎報(1168~1241)의 시이다. 이규보의 불교 사상이 어찌하였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내용의 작품을 직접 선승에게 건넬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점만으로도 그의 불교에 대한 폭넓고 깊은 관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시의 내용은 ‘어찌면 선승보다도 더 깊고 넓은 선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하고 의심할 정도이다. 운수행각을 떠나는 선승에게 자유자재한 도의 경지를 이처럼 쉽게 풀어 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불교에 심취하고 있었음을 반증함이 아닐까. 姜錫堉 또한 이 시에 대해 “白雲처럼 ‘自去自來’한 모습을 갖추라고 宗上人에게 넌지시 권하고 있는 이규보의 도력이 어찌면 宗上人을 능가하고 있는 것 같다.”¹⁸⁾고 평하면서 이규

15) 冲 止, 〈閑中自慶〉, 『圓鑑國師歌頌』, 『韓佛全』第六冊, 371쪽.

16) 정 민, 『한시미학산책』(솔출판사, 2001), 390쪽.

17) 李奎報, 〈送宗上人南遊序〉, 『東國李相國集』 제21권.

보의 불심을 이야기한 바도 있다.

이 시에서 ‘白雲’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나는 종종 선심에 비유되곤 하는 ‘마음 속의 하얀 구름’이요, 나머지 하나는 이규보 그 자신이다. 白雲이 전자의 의미라면 이 시는 두말 할 나위 없이 그대로 ‘示法詩’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자의 의미라 하더라도 이 시는 선시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을 비유하여 선의 경지를 나타내 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그 자신은 이미 선가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는 선기시인가, 아니면 선취시인가.

다음 작품을 보자.

靑帝頒新律	봄신께서 새 질서를 펼치니
郊原動草芽	들녘엔 새싹의 움직임
雪消春水漲	눈 녹아 봄물은 불어나고
煙起曉窓斜	연기는 새벽 창에 비껴 이네
溪柳初開眼	시냇가의 버들은 비로소 눈을 뜨고
庭梅欲放花	뜨락의 매화는 꽃잎을 내려 하네
霏然能潤物	빗줄기는 그렇게 만물을 적시어서
山野漸生華	산과 들은 갈수록 빛을 발하네

이 작품에 대하여 이종찬은 “자연의 발로, 이것이 선가의 이론으로 들어 왔을 때 그것2이 바로 선기의 노출이라 하면 어떨까.”¹⁹⁾ 하면서 작품에 내재된 선기를 읽고자 하였다. 간화선에서는 전통적으로 선기의 선양을 大旨로 삼아왔다. 그래서 선기란 선의 체화 또는 인격화라고 정의한다. 선기는

선의 7가지 의미 또는 선의 7대 정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簡素, 脫俗, 自然, 幽玄, 枯高, 靜寂, 變化가 그것이다.

이러한 의미망 안에서 보자면 이 시에는 분명 선기가 느껴진다. 언제나 如如한 자연의 현상이고, 그 如如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바라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고자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 수행 과정에서 필히 동반될 수밖에 없는 선기 그 자체인 것이다.

또한 언뜻 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시에 옮겨 담은 듯 하다. 어떠한 선리나 선기도 쉽게 읽을 수 없고, 그저 담박한 자연의 현상만이 펼쳐져 있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선기를 쉽게 배제할 수도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선과 여운이 합일되어 드러나는 선취의 경지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선취시란 무엇이겠는가?

細雨寒江外	가는 비, 찬 강 저 너머
殘霞落日邊	남은 노을, 지는 해 끝머리
故鄉在何處	고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遙望白雲天	멀리 보이는 하늘 가 흰 구름

〈望鄉〉²⁰⁾

‘고향’은 시인이란 누구나 한 번 짚은 작시의 대상으로 삼았을 법한 제재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심상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세속을 떠난 사람, 특히 불가의 선승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白雲’은 곧 고향이다. 그런데 白雲은 또한 선승들의 禪心에 곧잘 비유된다. 앞서 언급한 이규보의 〈送宗上人南遊序〉라는 작품에서도 이런 비유를 볼 수 있었다. 결국 白雲은 곧 禪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 또한 작자의 신분을 염두에 두었

18) 姜錫瑾, 『이규보의 禪趣詩의 樣相과 特徵』, 『韓國思想과 文化』 第11輯(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18쪽.

19) 李鍾燦, 『靜觀의 禪味』, 『韓國佛家詩文學史論』(불광출판부, 1993), 291쪽. 이종찬은 靜觀의 禪味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 이 작품은 靜觀의 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 虛靜, 『虛靜集』, 『韓佛全』, 494쪽. ‘鶴髮病親在高堂故’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기에 가능한 주관적 읽기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읽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전구인 ‘故鄉在何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고향이 어디냐’로 끝나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것을 찾는 지은이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다. 悟道를 추구하는 지은이로서는 결국 찾아야 할 곳이 悟道處일 것이고, 그것을 白雲에 비유한 것이다. 결국 白雲에 비유된 고향은 오도처에 다름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지은이를 배제한 채 읽기를 시도한다면 이 작품은 그저 고향을 그리며 쓸쓸한 정서의 표출에서 그치고 만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시의 내면에 흐르는 선취를 밝히기란 매우 곤란한 일이 된다. 결국 선취시란 지은이 혹은 지은이의 작시 배경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 쓰기와 읽기의 산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天光如水水如煙
此地來遊已半年
良夜幾同明月臥

하늘빛은 물과 같고 물은 또 연기와 같으니
이곳에 와서 노닐 지도 반 년 나마 흘렀네
좋은 밤 밝은 달 아래 누웠던 적이 몇 번이던가

清江今對白鷗眠
嫌猜元不留心內
毀譽何曾到耳邊

맑은 강가에서 기러기를 바라보며 잠이 드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원래 내게 없었으니
편하하고 기리는 소리 어찌 귓전에 이르렀겠는가

袖裏尙餘驚雷笑
倚雲更試杜陵泉

소매 속에는 뇌소차가 아직 남아 있으니
구름에 기대어 다시 두릉의 샘물을 길는다네

〈石泉煎茶〉²¹⁾

이 작품은 석천의 물로 차를 달이는 심회를 담고 있다. 草衣禪師 意恂(1786~1866)이 한양에 온 지 반 년 남짓 지난 후, 비로소 한가로이 자신

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자 지은 시이다. 오랜만에 다기를 꺼내어 앞에 두고 차를 끓이면서 차향과 함께 우러난 자신의 정신세계를 관조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대개 차를 끓이고 茶道를 즐기면서 티 없이 맑은 정신을 잃지 않는 선사의 생활을 일컬어 茶禪一味의 경지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차를 마시는 일이 곧 선의 참맛을 느끼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佛法은 고차원의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곳에 있으며,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데에 있다는 馬祖 道一의 ‘平常心之道’에 다름 아닌 것이다.²²⁾

여기에서 우리는 ‘평상심’과 ‘선취’의 합일점을 찾을 수 있다. 누구나 일상에서 항상 그렇게 대하였으나〔平常心〕 그것이 禪心이었음을 알지 못하는 이와, 그것과 禪心이 이미 별개가 아님을 아는 이와의 차이는 아마 누구든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를 작품 속에서 구별하기란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평범함 속에서의 티끌만한 비범함을 찾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범함이 자연스럽게 시에 녹아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알 듯 모를 듯한 여운을 줄 수 있는 경지에 올라야 비로소 그 시를 선취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위의 작품처럼 한 줄기 차향 속에서 함께 피어오르는 그윽한 선향을 자신도 모르게 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야말로 선취시인 것이다.

다음 시는 조선 전기 방외인이라 불렀던 梅月堂 金時習(1435~1493)의 所作이다.

竟日臥耽睡
懶慢不出戶
圖書拋在床

잠에 취한 하루
문밖에도 나서지 않는 게으름
책상에 던져진 그림, 책

21) 草衣, 『草衣詩藁』 卷上, 『韓佛全』 第十冊, 843쪽.

22) 조태성, 초의선사의 시문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68~69쪽 참조.

卷帙亂旁午 어지러운 서첩 가운데 오후
 瓦爐起香烟 화로에선 향연이 피어나고
 石鼎鳴茶乳 돌솥에선 찻물 끓이는 소리
 不知海棠花 알지 못했네, 해당화꽃
 落盡千山雨 온 산 내린 비에 꺾여 다함을
 〈耽睡〉²³⁾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느 오후의 정경만이 그려지는 작품이다. 방외인으로서의 그의 처지를 감안하여 굳이 해석을 가한다면, 결국에서나 그 뜻을 읽을 수 있을까. 선비로서의 뜻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물러나 있는 자신의 현실을 담고 있다는 정도의 읽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적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이 작품은 좀더 다르게 읽힐 수 있다. 기구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란 일상적 게으름을 말한다기보다는 禪定 가운데 찾아드는 ‘무심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無心’인 것이다. 그러하니 승구에서 말하는 어지러움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는 무심을 위한 시공간적 배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무심한 가운데 보이는 것은 한 줄기 향연이요, 들리는 것은 찻물 끓이는 소리이다. 또한 무심한 가운데 문득 느껴지는 것이 禪心이요 禪味임은 여타의 선시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이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시구가 바로 결구이다. 온 산이 다 젖을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꺾이지 않을 꽃잎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함은 그만큼 깊은 무심의 경지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선불교의 특징 중의 하나로 ‘聖解不留 凡情脫落’를 꼽을 수 있다. 즉 禪은 성스러운 견해도 머물지 않고 범속한 생각에서도 벗어난 것을 말함이다. 그것이 바로 ‘無心’이 아닐까. 선취시란, 그래서 무심의 시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쓰는 이는 물론이거니와 읽는 이도 함께 무심에 젖어들

수 있게 하는 시, 그 무심을 무심하게 읽을 수 없게 하는 시, 그래서 그 경지를 선취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살폈듯이 선취시는 선시의 한 갈래가 아니라 선시에 있어 그 문학적 수준이 최고 경지에 이르는 작품을 말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선취란 선시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궁극적인 시의 경지를 말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선취시를 선시의 한 갈래로 규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물론 선취시가 기존 선시의 분류 체계에서 제외된다면 분류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붕괴라기보다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이진오의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분류체계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로 미룬다.

그리고 이러한 선취의 개념이 선시에 대한 문학적 수준을 판가름하는 매개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여부에 따라 선시의 한 비평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도 제안해본다. 애초부터 선취란 주관적 읽기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취에 대한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것이 선시에 대한 문학비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리라고 여겨진다.

23) 金時習, 『梅月堂集』 詩集 卷二(『韓國文集總刊』 13), 118쪽.

■ 참고문헌

金時習, 『梅月堂集』.
 李奎報, 〈送宗上人南遊序〉, 『東國李相國集』.
 東國大學校 韓國佛教全書編纂委員會, 『韓國佛教全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姜錫堉, 「이규보의 禪趣詩의 樣相과 特徵」, 『韓國思想과 文化』 第11輯,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18쪽.

杜松柏, 『禪學與唐宋詩學』, 臺北:黎明文化事業公司, 1975, 197~364쪽.

杜松柏 지음, 朴浣植·孫大覺 옮김, 『선과 시(禪과 詩)』, 민족사, 2000, 317~349쪽 참조.

李鍾燦, 『한국의 선시』, 이우출판사, 1985.

_____, 靜觀의 禪味, 『韓國佛家詩文學史論』, 불광출판부, 1993, 291쪽.

_____, 『韓國禪詩의 이론과 실제』, 이화문화출판사, 2001, 100쪽.

李晋吾, 『韓國佛教文學의 研究』, 民族社, 1997, 46~47쪽.

정 민, 『한시미학산책』, 솔출판사, 2001, 390쪽.

조태성, 「초의선사의 시문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68~69쪽.

〈투고일 : 2008. 6. 30. 심사일 : 2008. 7. 17. 심사완료일 : 2008. 8. 12.〉

〈Abstract〉

A problem of the mood of zen〔禪趣〕
 in the Korean zen poetry

Jo, Tae-seong

The zentic poetry is not a branch of zen poetry. I think it is a term using when we speech a work is the best zen poet. Namely, the mood of zen〔禪趣〕 is to be a ultimately state of zen poetry. Under this point of view, there is no need to prescribe the zentic poetry to a branch of zen poetry.

Of course, if the zentic poetry is excepted in the existing system of zen poetry, it will collapse down the system. But I think this collapse demand to the new classified system of zen poetry, and I will put off with the next study on the new classified system. And I suggest to make as the critic basis of zen poetry.

Key words : Sijo, The continuity of learning, Musicality, Literariness, Modernity